

## 주한미군 전몰장병 추모행사 메시지

오늘은 미합중국 전몰장병들을 추모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세계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치신 고인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며 명복을 빕니다.

또한,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리온 라포트 사령관을 비롯한 3만 7천여 주한미군 장병들에게 각별한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올해 우리는 한·미 동맹 5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반세기 전 6·25전쟁에서 수많은 미군장병들은 한국과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 후로도 주한미군 장병들은 우리와 함께 피땀 흘려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 왔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에도 지대한 공헌을 해왔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주한미군 장병들의 값진 희생과 헌신을 가슴깊이 감사하고 있으며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한·미 동맹이 함께 나아갈 앞으로의 50년은 지금까지보다 더욱 소중하고 뜻깊은 시기가 될 것입니다. 나와 조지 부시 대통령은 지난주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을 한차원 높은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동맹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나는 우리 양국이 전통적인 혈맹의 전우애를 바탕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공동번영을 위해 더욱 더 굳게 협력해 나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전몰용사들의 거룩한 희생을 마음으로부터 추모하면서 주한미군 장병들의 건승과 가족 여러분의 행복을 기원합니다.